

“정부·기업 한배 탔다...대타협 기회로”

문 대통령, 주요 산업계 간담회 ‘위기 극복 으쌰으쌰 노력하자’ 섬유업계 대표 조현준 효성 회장 ‘비대면 경제 중요성 깊이 공감’

문재인 대통령과 국내 주요 기업 대표들이 21일 오전 한국무역협회에서 만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충격 최소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예정 시간을 약 30분 넘겨 115분간 진행된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은 한배를 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 노사의 고통 분담과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배를 탔다”는 표현을 두차례 반복하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으쌰으쌰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위기는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를 중요한 기회다.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업인들 역시 현장의 어려움을 전담하며 지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에 기업도 힘을 합치겠다고 입을 모았다.

금 지원받으려면 6개월간 90% 이상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거론하면서 “이를 충족하려면 작게는 기업 내 노사 합의, 크게는 노동계-경영계-정부-시민사회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타협이 이뤄지면 (6개월이 지난 뒤에도)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정부가 기업을 돕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은행이 과거와 달리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인수하는

기관에 대출을 해줬다”며 이주열 총재에게 고마움을 표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및 이종걸 산업은행 회장에게도 금융지원 역할에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산업과 일자리의 모두 위기상황이지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었다”며 “한국합의, 크기는 노동계-경영계-정부-시민사회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디지털화가 강화될 것”이라며 “기업·정부·국민이 합심하면 코로나 산업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경제 시대의 강자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제안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인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비롯해 조현준 효성 회장, 우기흥 대한항공 사장, 백승석 사프리에이비엔케이 사장, 배재훈 HMM 사장,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 이원해 대도엔지니어링 회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사장, 가삼현 현대중공업 그룹 사장 등 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정유-석유화학-철강-섬유 등 9개 기간산업 업종 대표들이 참석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배를 탔다”는 표현을 두차례 반복하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으쌰으쌰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위기는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를 중요한 기회다.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업인들 역시 현장의 어려움을 전담하며 지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에 기업도 힘을 합치겠다고 입을 모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의 기간산업안정기금에 기업의 기대가 크다”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야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보니 일하는 국회에 대한 희망이 커졌다”고 말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비대면 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 섬유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며, 특히 섬유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정부의 기간산업기

광주시,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50% 지원 고용유지·4대보험 가입 조건...시민공공일자리 4102명 모집도

광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50%를 지원한다. 또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시민 4000여명도 공개 모집한다.

21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신규채용 인건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광주시 소재 사업장인 중소기업(30인 이하 상시근로자)과 소상공인(5인 이하)이다. 다만 6월부터 인력감축 없이 고용유지가 돼 있어야 하고, 신규채용된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인건비 50%(월 최대 89만8000원)를 지원하며 1개월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규모는 중소기업 1000명, 소상공인 1000명으로 한 사업장당 중소기업은 3명, 소상공인은 1명 이내까지 지원한다.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광주시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시청 1층 시민홀 접수창구,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전략사업부 및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받는다.

광주시는 또 22일부터 6월 1일까지 코로나19 관련 2단계 시민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4102명도 공개 모집한다.

시는 1단계로 생활 방역 분야 971명을 채용한 데 이어 2단계로 518억원을 투입해 생활형 공공일자리, 노인 일자리, 민간 일자리 등 1만1992명을 차례로 채용한다.

공고일인 22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70세 미만으로, 지난 4월 22일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광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자, 공공근로 등 재직 지원 일자리 사업 중복·반복 참여자, 대학 재학생 등은 정부 지침에 따라 제외된다.

참여 신청은 광주시 홈페이지, 시청, 주소지 관할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근로 시간은 주 25시간, 근로 기간은 사업에 따라 3~6개월이며 임금은 최저 임금을 적용한다. /박진표 기자 lucky@

마한 포함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 국회 통과

마한문화권을 포함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마한사 복원과 정체성 확인 등에 관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마한(馬韓)은 1~3세기 영산강 유역을 비롯한 한반도 중남부에 분포한 삼한 중 하나로 전남의 뿌리 격이다 그동안 관련 연구가 부족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지역광약 사업에 “전라도 정도 1000년 기념 영산강 유역 고대 문화권 개발” 사업이 포함됐고, 전남도도 마한사 연구복원과 활용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과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지역국회의원들과 ‘역사문화권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역사문화권 특별법은 문화권별 문

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별법은 역사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발굴, 복원해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 육성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사문화권 정비 및 역사문화환경 조성 관련 각종 활동의 체계적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해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두도록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역의 숙원인 마한 특별법이 제정돼 발굴 및 복원 등 사업에 추진 동력이 확보됐다”며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마한 문화권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조 기자 khh@kwangju.co.kr

역대급 폭염이라는데...무더위 쉼터 폐쇄 어쩌나

광주시, 코로나19 확산 우려 복지시설 등 1452곳 운영 중단 쿨링포그·물놀이장도 중단 예정 취약계층 비상 대책 시급

올해 역대급 폭염이 예보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여름철이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던 ‘무더위 쉼터’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무더위를 식혀줄 쿨링포그(물안개 분사 장치) 시스템과 각종 물놀이장 운영은 물론 폭염 속 취약계층을 돕는 ‘폭염도

우미’ 활동 등도 중단될 예정이어서 취약계층의 여름 나기는 그 어느해 보다 힘들 것으로 보인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 여름에는 지난해 무더위 쉼터로 지정 운영했던 경로당·은행·복지시설 등 1452곳에 대해 무더위 쉼터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밀집해 에어컨 등을 가동할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시설이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광주시는 또 광주 도심 16곳에 설치된 쿨링포그(물안개 분사 장치)의 운영도 중단한다. 보행자들의 입 등에서 나온 비말(침방울) 등이 분사된 미세 물 입자에 섞

여 코로나19가 전파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한 여름 시민들의 무더위를 식혀줬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시민의 숲·패밀리랜드 등의 야외 물놀이장 운영 중단 여부도 검토 중이다. 시는 이와 함께 폭염 취약계층을 돕는 재난도우미·구급대도 확진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우려해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광주시는 다만 주요 교차로에 설치돼 있는 그늘막 335개는 야외에 있고, 전파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그대로 운영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노약자를 보호하는 폭염 대책인 무더위 쉼터 운영을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대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야외에

무더위 쉼터 조성 등을 고민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더위를 이겨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더위 쉼터는 폭염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 어르신들의 여름나기가 걱정”이라며 “실내시설은 쉼터로 지정하기가 어려워 야외에 마련하는 것을 검토 중이지만, 코로나 확산 우려로 선풍기조차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광주문화관광캐릭터 ‘오매나’ 22일 공개오디션

광주시는 21일 “국민을 대상으로 모집한 광주문화관광캐릭터 ‘오매나’ 배우를 22일 오후 3시 공개오디션으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공모에는 20대부터 60대까지 총 16명이 지원했다. 여성지원자는 7명이며, 러시아 국립 슈니언극대학 출신 등이 색역 지원자도 포함됐다.

오디션은 ‘총장22’ 개관식 2부 행사로 3시간 동안 열릴 예정이다. 심사는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20명으로 구성된 시민평가단 청중심사로 진행되며, 전자공개투표

를 통해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1차 심사에서는 지원자의 얼굴을 공개해 춤, 노래, 삼행시 짓기 등 ‘끼배틀’을 벌이고, 2차 심사에서는 1차에서 선정된 최종 2인이 오매나 인형탈을 쓰고 자유 표현 대결을 펼친다.

오매나 배우는 앞으로 광주문화관광 오매나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유튜브,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 시: 2020. 6. 23(화) 오후 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0. 6. 16(화) 오후 7시.
- 장 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백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점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점(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광주 도시권내역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안),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한 재검토·공고

광주광역시청

구분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비고
총 계	1,433,362	100.0	1,433,362	100.0	
상가지구	32,081	2.3	32,169	2.3	
상가부지	18,386	1.3	18,386	1.3	56세대
공용	6,128	0.4	6,128	0.4	
공원	7,567	0.5	7,565	0.5	
윤네스코 세계유산공원 물놀이	6,800	0.5	6,800	0.5	
공공기관	8,540	0.6	8,540	0.6	
공원부지	43,030	3.0	40,168	2.8	
공공시설부지	52,811	3.7	55,585	3.9	
공원	13,626	0.9	13,626	0.9	
농지	8,143	0.6	8,129	0.6	
주차장	16,318	1.1	16,358	1.2	2개소
동굴	14,724	1.0	15,422	1.1	

주요 변경사항

- 1.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변경: 변경 없음
- 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안) 변경: 변경 없음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변경: "변경 없음" 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없음"
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일자 관련 사항: "변경 없음" 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영역: "변경 없음"
마 도시개발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바 도시개발구역의 "변경"
교 도시개발구역의 "변경"

3. 공개강좌

4. 주민참여 및 의견청취

다들카페 광주금당산악회

010 624 2678, 010 3620 2284

6월10일(수)

- ▶ 광주청록산악회 (6월10일(수) 충북 제천 동산-작성산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와 06:30. 교직원공제회관 06:40. 예술회관후문 06:50. 각화동 현대물류앞 07:0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6월17일(수)

- ▶ 광주청록산악회 (6월17일(수) 경남 거창 우두산-의상봉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와 07:30. 교직원공제회관 07:40. 예술회관후문 07:50. 각화동 현대물류앞 08:0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6월6일(토)

- ▶ 광주청록산악회 (6월6일(토) 서울 도봉산·사매산·여성봉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와 05:10. 진원동식자재마트앞 05:20. 영주체육관 05:30. 한국병원앞 05:40. 문예회관정문 05:50.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사람찾음

본명 조영진 씨
서울에서 스쿠알렌사업 했을 때 이름 김홍삼 연락요망.

연락이 안되면 집으로 갑니다.

신은선 010-3305-9974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곁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이날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
---------------------	---------------------	---------------------